



‘제1회 선운산농협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 성료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육)이 주최한 제1회 선운산농협 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가 23일, 고창군 공음면에 위치한 청보리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선운산농협이 주최하고 고창군파크골프협회와 선운산농협이 공동으로 대회를 이끌었다. 대회에는 선운산농협 무장면, 아산면, 공음면 지역 동호인과 조합원 등 150여명이 함께 모여 건강을 다지고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기육 조합장은 대회사에서 “파크골프는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으로, 오늘의 만남이 건강과 우정을 키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선운산농협은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지역 사회의 희망’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선운산농협 농가주부모임의 숨은 노고 가 빛이 났다. 대회 준비과정에서 음식 장만, 내외빈 맞이, 진행 지원 등 살림살이를 도 맡은 농가주부모임에 대해 김기육 조합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더해 주신 덕분에 대회가 한층 따뜻해지고 폭력이 더해졌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대회 주관을 맡은 고창군파크골프협회에선 ‘첫 대회임에도 높은 참여와 질서 있는 진행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고 평가했으며, 선운산농협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회,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는 지난 22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조만규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소속 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의회 구축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고창군의회는 이윤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구실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향상과 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의회가 주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부패 관련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실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인월초 총동문회,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남원시는 인월초교 총동문회 김종진 회장이 22일 남원시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종진 회장은 “1925년 개교한 인월초등학교가 자랑스러운 100주년을 맞이하여 남원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게 된 것은, 남원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인재 육성 사업을 잘 추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성덕면 지사협, 김제사랑상품권 나눔 추진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양경철)가 지난 22일 지역 내 저소득 및 한부모 아동·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지원을 위해 김제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교육활동에 제약 받는 저소득 및 한부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총 10명의 아동·청소년에게 김제사랑상품권이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학습용품 구입, 문화체험, 생활필수품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상회 강천산 매장, 9월 말 본격 오픈

24개 업체 참여... 로컬푸드 형식으로 운영·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순창상회(조합장 최기호)가 강천산 매장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역 상인들과 함께 설명회를 열었다.

순창상회는 지난 22일 강천산길 84에서 입점 업체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등 24개 업체가 참가해 매장 운영 방향과 오픈 일정을 공유했다.

강천산 매장은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지역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형식으로 꾸려진다. 장류, 농산물, 가공식품 등 순창을 대표하는 상품들이 관광객과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될 예정이다.

최기호 조합장은 “강천산 매장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라며 “관광객들이 지역 농특산물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천산 매장은 24개 입점 업체 위촉을 통해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 하는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 첫 호국영령 추모제 열어

경천면 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개최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회장 김기범)가 23일 경천면 완주 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제1회 호국영령 추모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훈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추모제는 전통제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모사, 진혼무, 추모가 순으로 진행되며 호국영령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김기범 회장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이번 추모제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1회 호국영령 추모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호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 가족들이 존경받으며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국보훈의 도시 완주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호국영령 추모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다문화가족 한국추석문화 체험·나눔 행사 성료

전북가족센터·농협 전북본부

전북여성가족재단 소속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는 23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총괄본부장 이정환)와 함께 ‘다문화가족 한국추석문화 체험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대표 명절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며, 다문화가족 24명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임직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송편 빚기 △추석상 차리기 △사과껍질 길게 깎기 등으로 다문화가족들은 ‘뽕시 송편상’, ‘최고의 차례상’, ‘사과 길게 자르기상’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총 300만원 상당의 송편을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김제시·완주군가족센터에 전달했다.



우소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들이 추석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유니텍고,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우승

남고부 왕중왕전서 원광고 2-0으로 이겨

장수군에 위치한 전북유니텍고등학교(교장 박종재)가 최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남고부 왕중왕전에서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2대 0으로 꺾고 전북 협회관에 등극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 각 시군을 대표하는 학교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전북유니텍고는 탄탄한 조직력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모든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정상에 올랐다.

전북유니텍고등학교는 남학생 76명, 여학생 26명의 소규모 특성화고로,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모여 만든 축구 자율동아리 ‘패널티킥 상담소’와 협력단련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지도교사 강재욱(체육), 이승환(상담) 교사는 대회 기간 내내 ‘One chance, one goal!’이라는 구호를 강조하며 선수들의 집중력과 팀스피릿을 북돋았다. 학생들의 열정은 경기장에서 멋진 플레이로 이어졌고, 우승 순간 많은 이들에



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우승은 학교만의 성과가 아니다. 장수군 축구협회와 장계레드FC 등 지역 축구 단체들이 훈련 지원에 힘을 보탠 덕분에 학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우승은 더욱 뜻깊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인월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6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금상 쾌거

고창소방서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난 22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참여해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심폐소생술 △단체줄넘기 등 소방기술과 팀워크를 겨루며,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종합 2위에 해당하는 금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소 갈고닦아온 실력과 단합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쌀 소비촉진 캠페인 진행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22일, 농심천심운동 일환으로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운영농협 본점에서 펼쳤다.

농심천심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상생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켜나가는 범농협 차원의 캠페인이며,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오영석 지부장은 “농심천심 운동은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추석 맞이 이웃돕기 나서

남원시 아영면은 올해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아영면 귀농귀촌협의회가 여러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봉사활동으로, 형광등 교체, 소규모 수선 등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와 마을 입구부터 행정복지센터까지 쓰레기 줍기 및 제조작업을 통해 귀향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아영면 자율방범대는 10kg 백미 29포(100만원 상당)를 기부하고, 아영면은 자체적으로 행복꾸러미 26박스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그 외에도 생수 기부(100만원 상당)와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위문,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마음 잇기 지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풍성한 추석 명절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영면은 이번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며, 모든 주민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웃들이 후원은 아영면 행정복지센터(620-4090)를 통해 가능하다.

이금연 아영면장은 “사람들의 따스한 기운이 모두에게 전해져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 명절음식 나눔사업 추진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인)가 23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풍성한 추석 명절음식 나눔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취약계층 60세대에 송편과 명절음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맛있고 정성 듬뿍 담긴 음식 장만을 위해 협의체 위원들은 며칠 전부터 재료 준비 및 손질 등에 정성을 쏟았으며, 당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 오후 늦게까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까지 가졌다.

이강인 위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협의체에서 준비한 명절음식을 받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